

해외LP가스정보

日 LP가스진흥센터

시장별 이슈

1. 아시아 · 중동 · 중앙아시아 지역



인도

2006년 2/4분기 LPG수입량은 1/4분기와 비교해서 감소하였다. 2005년 말 국내생산이 급증하여 잉여분이 발생한 때문이다. 2005년 4/4분기에는 주요정유사들의 정기점검시기가 겹쳐 수급이 순조롭지 못했다. 정유사들의 정기점검시기가 끝나고 국내생산이 증가하여 수입량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며, 인도의 LPG 수입량은 늦어도 하절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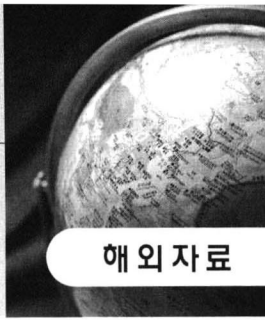
인도의 민간 석유정제·석화기업 Reliance사는 잉여 LPG의 수출을 검토하고 있다. 3월경 부터 3~4만톤가량을 수출하고 있으나, 5~7월에는 월간 5만톤 내외가 될 전망이다. 내수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에 잉여분에 대한 처리개념의 수출이다.



중국

1~3월 수입통계에 따르면 1월 LPG수입량은 327천톤(전년동기대비 37%증가), 2월 419천톤(28%증가), 3월 404천톤(14.8%증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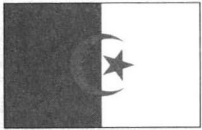
중동에서 수출량은 약 50%가 사우디의 라스타누라, 안부 약8%, 아부다비 20%, 쿠웨이트 8%, 카타르 7%, 이란 7%로 집계되었다. 4월 안부 생산량은 북서유럽 약40%, 이집트 약20%, 인도 약5%, 그 외 등으로 수출되었다. 5월은 수에즈동쪽으로 약20%, USA 37%, 미정 40%. 라스타누라의 4월생산량은 일본향 50%, 중국향 약28%, 인도향



해외자료

약9%, 이집트향 약5%, USA향 약5%. 5월은 일본을 포함하는 극동향이 약 50%, 중국향 약7%, 인도향2%, USA향 7%, 호주향 3%, 등으로 나타났다.

2. 유럽 · 아프리카 지역



알 제 리

5~6월중 알제리에서 생산되는 LPG(카고선 10여개분량)가 미국으로 향할 전망이다. 4~5월에 생산된 LPG제품의 수출지역은 통상 지중해향 약30%, USA향 30%내외, 북서유럽 약10%, 터키가 약10%, 그 외 이집트 등이었으나, 6월에는 USA 향이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적도기니

LPG 텀계약(term contract) 입찰결과, 구미 거래기업이 낙찰되었다. 6개월 계약(7월~12월)으로 파는 측에서 6개월의 연장옵션을 가지게 되었고, 수량은 30만톤 규모로 P70%, B30%(부탄에는 30%내외의 이소부탄을 포함)이다.

3. 북미 · 중남미 지역

< 북미 >

석화향 나프사가 가솔린혼합제 쪽으로 전향되었기 때문에, 석화향 나프사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LPG소비가 증가했다. 재고량 수준도 낮아져 가격이 상승 중에 있다. 2/4분기 수입의 약 절반가량은 부탄이었으며, 5~6월 수입부탄은 직접 석화플랜트로 향했다. LPG수입량이 동절기 난방용을 위한 재고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과거 통계를 살펴보면, 원유와 LPG의 가격차는 프로판이 원유의 약 77%수준을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60%대 초반에 위치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60%대를 하향 돌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프로판가격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프로판가격은

해외자료

상대적으로 회복기조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LPG가격의 기초가 되는 원유의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유시장은 [Head line trader](주요보도기사에 따라 매매포지션을 변동하는 거래자)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 이들의 선행 차트동향을 전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LPG가격흐름에 대한 전망도 어렵다.



미국

미국향수입

2006년 5월까지의 수치를 기초로 해서 연간통계를 추정해보면 미국의 LPG수입량은 5,600만배럴로 추정되며, 2005년의 약88%에 해당된다. 2006년에도 2005년과 마찬가지로 후반기에 같은 수준으로 움직인다면 기록적인 수입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부터 수입장해요인을 점차 제거하여 미국내 상업LPG터미널을 보유한 민간기업 Targa사와 Enterprise사는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국내향 출하속도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수입능력이 큰 폭으로 개선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 총수입량 6,300만 배럴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남미〉

아르헨티나는 극동지역과 계절적으로 정반대이기 때문에 1~2월의 잉여분을 일본,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국내향을 수출로 전용하게 되면 톤당 약125달러 이익이 발생하여 큰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정부는 4월말에 수출을 억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5월에는 다시 해제했다.



볼리비아

2005년말 대통령선거에서 우익계파의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2006년 5월 해외자본을 소유하는 석유·가스자산의 국유화를 선언했다. 따라서 주요 가스개발계획이 모두 정지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가장 활발하게 가스계획에 참여하고 있던 브라질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가 최대 피해를 받게 되었다. 태평양LNG컨소시엄계획에서는 볼리비아의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태평양연안으로 수송하여 액화한 후 LNG를 수출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수반 LPG에 대한 수출계획도 보류상태가 되었다.